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목표추구지향성 및 자기구실 만들기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Overprotection, Goal-Seeking Orientation and Self-Handicapping on their Academic Procrastination

이지선(Ji Seon Lee), 김정민(Jung Min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among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overprotection, goal-seeking orientation, self-handicapping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1200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A total of 942 questionnair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differed by school grades. Second, for the high-performing group, self-handicapping, goal-seeking orientation and parental overprotec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ir academic procrastination. For the mid-level performing group, self-handicapping and goal-seeking orient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ir academic procrastination. For the low-performing group, self-handicapping was the only predictor of their academic procrastination. Third, for the high-performing group, self-handicapping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hose results provide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proactive support or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주제어(Key words): 부모의 과보호(parental overprotection), 목표추구지향성(goal-seeking orientation), 자기구실 만들기(self-handicapping), 학업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 청소년(adolescent)

I. 서론

지연행동은 수행해야 할 일을 정해진 시간 내에 시작하거나 혹은 끝내지 못함으로써 목표 달성 실패 결과를 초래하는 자기조절 곤란 행동으로 정의되는데(C. A. Wolters, 2003), 이러한 지연행동은 일상생활을 포함하여 진로나 학업, 대인 간 상호작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R. Emmett, 2000). 이중 특히 학업 수행 영역에서 관찰되

는 지연행동을 '학업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으로 학업 장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 또는 시험 공부를 지속적으로 미루는 양상으로 나타난다(E. Seo, 2006). 이러한 학업지연행동은 청소년의 약 30%에서 70%가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될 만큼 흔히 일어나지만(S. Park & E. Seo, 2005),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만성적인 행동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낮은 학업 성취, 또래 관계 실패 등 학교 적응의 심각한 어려움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며 2016년 5월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통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바 있음.

* Corresponding Author : Jung Min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34, Seobukgol-ro, Seodaemun-gu, Seoul, Korea, Tel: +82-2-300-0603, E-mail: jmkim122@mju.ac.kr

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나아가 무기력, 낮은 자아존중감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행동으로 간주된다(J. R. Ferrari, 2000; G. L. Flett & P. L. Hewitt, 2013; N. Harrington, 2005; S. Lim & M. Park, 2010; K. Nam & E. Son, 2013; M. Sharma & G. Kaur, 2011; F. M. Sirois & D. Stout, 2011; M. M. Spada, K. Hiou, & A. V. Nikcevic, 2006).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효능감(Y. Han, 2011; L. L. Krawchuk, 2008; L. A. Rabin, J. Fogel, & K. E. Nutter-Upham, 2011; G. Schraw, T. Wadkins, & L. Olafson, 2007; W. V. Eerde, 2003), 완벽주의(D. Bae, 2009; B. E. Capan, 2010; Y. Han, 2011; H. Kim, 2003; M. Lee & K. Oh, 2009; A. J. Onwuegbuzie, 2000; P. Steel, 2007), 불안 또는 우울(J. B. Burka & L. M. Yuen, 2004; J. R. Ferrari, 2000; N. Harrington, 2005; P. Steel, 2007; J. Stöber & J. Joormann, 2001), 충동성(H. Huh, S. Lim, & S. Kwon, 2015; C. H. Lay, A. Kovacs, & D. Danto, 1998; P. Steel, 2007) 등의 일반적인 개인내적 변인들에 대한 것들이다. 즉,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과도하게 높은 기대 수준을 설정하는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높거나, 에너지 수준이 낮아 무기력 또는 우울이 높은 경우, 충동 성향으로 인해 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모두 지연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학업 영역에서의 지연행동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나 일부 연구들은 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지연행동을 영역 구분 없이 다루고 있어, 지연행동이 개인에 따라 그 영역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한 개인의 경우에도 영역에 따라 지연행동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등이 간과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개인의 일반적 또는 탈상황적 특성보다는 특정 과제 수행이 목표로 제시되는 상황에서 지연행동을 야기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더 명확한 지연행동의 기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학업적 지연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기구실 만들기(self-handicapping)는 설정된 목표 수행 성공에 방해가 되는 상황들을 사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심리적 전략을 가리키는데(N. Ntoumanis, I. M. Talor, & M. Standage, 2010), 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실패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돌림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전략은 실제로 개인의 과제 수행 혹은 목표 달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불구화 전략이라고도

불리며, 구체적인 예로는 약물복용, 음주, 스스로 피곤하게 만들기, 다른 일에 시간 할애하기, 과제 수행을 다른 일을 마친 후로 미루기, 시험 전날 영화 보기, 시험 범위 확인하지 않기 등이 있다(T. Urdan & C. Midgley, 2001). 특히 자기구실 만들기는 성패가 있는 상황,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학업지연행동과의 연관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과제의 수행 시작 및 완수를 지연시키는 변인들 중 하나로 보고되는 실패에 대한 불안(D. Bae, 2009; S. Berger & A. M. Freund, 2015; C. Grunschel, J. Patrzek, & S. Fries, 2013; H. Kim, 2003; N. Milgram & R. Tenne, 2000; P. Steel, 2007)은 정해진 기한 내에 요구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동시에 성패가 존재하는 학업 수행 상황이 부적응적 자기 보호 전략을 부추길 위험이 있음을 가리킨다. 또한 이러한 상황들은 스트레스를 수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회피 방안으로 자기구실 만들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기구실 만들기는 귀인(attribution)과 비슷해 보이나, 귀인은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 내리는 추론인 반면, 자기구실 만들기는 어떤 일을 수행하기 이전에 선택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지연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J. Kim, 2008).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개인내적 변인으로 B. M. Dykman(1998)가 제안한 목표추구지향성(Goal-seeking Orientation)에 주목하였다. 목표추구지향성은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위해 혹은 타인의 승인 및 인정을 얻기 위해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결과, 목표추구지향성은 학습 동기(A. J. Elliot & D. E. Conroy, 2005; A. C. Moller & A. J. Elliot, 2006; C. L. Nien & J. L. Duda, 2008; M. Smith, J. Duda, J. Allen, & H. Hall, 2002), 접근 및 회피 행동(A. J. Elliot & H. A. McGregor, 2001; A. J. Howell & K. Buro, 2009; A. J. Howell & D. C. Watson, 2007; H. A. McGregor & A. J. Elliot, 2002; C. A. Wolters, 2004)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목표추구지향성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지연행동을 상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목표추구지향성은 자기효능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J. E. Lindsay & W. D. Scott, 2006), 이 또한 학업지연행동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는 이러한 개인내적 변인들 외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중 하나인 부모의 과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모의 과보호란 자녀의 독립적 행동 거부, 자녀에 대한 과도

한 관여 및 접촉, 자녀와의 불분명한 경계를 지칭한다(T. Charles & E. E. Lynn, 2006). 여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녀의 부정적 정서(J. Heo, 2006; C. Kim, 2010; L. A. Niditch & R. E. Varela, 2012; J. Noh & H. Song, 2007; S. So, M. Song, & C. Kim, 2010; K. Suh, J. You, & K. An, 2008; R. Yahav, 2007), 완벽주의(S. M. Abd-El-Fattah & H. A. Fakhroo, 2012; E. E. Reilly, P. Stey, & D. K. Lapsley, 2016; M. Yoo, E. Ha, & H. Kim, 2004), 자기효능감(E. Baugh & C. Davis, 2016; Y. Hong, 2009; H. Hwang & Y. Choi, 2005; S. Lee, 2006; Y. Liu, I. Park, & Y. Moon, 2010; W. Park & M. Kim, 2009)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 하거나, 자녀의 독립적인 성공 경험과 실수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J. Nelsen & C. Erwin, 2000). 따라서 이러한 과보호를 경험한 자녀의 경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만성적인 지연행동을 더 빈번하게 보였으며, 지나치게 통제적인 부모를 둔 자녀가 지연행동을 더 자주 보였다는 연구결과들(I. Hwang & S. Jang, 2010; A. M. Mahasneh, O. T. Bataineh, & Z. H. Al-Zoubi, 2016; T. A. Pychyl, R. J. Coplan, & P. A. Reid, 2002; H. Zakeri, B. N. Esfahani, & M. Razmjooe, 2013)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를 애정으로 지각하기도 하나,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과보호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H. Ahn & A. Mo, 2012; M. Kim, Y. Kim, & S. Han, 2008; Y. Moon & D. Kim, 2001). 이 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수동적 공격행동이 학업지연행동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Y. J. Chyung, 2004; W. H. Missildine, 2006; J. S. Silk, A. S. Morris, T. Knanya, & L. Steinberg, 2003). 이렇듯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학업 실패 및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킴으로써, 또는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와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불안을 낮추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일종의 회피 행동인 자기구실 만들기를 선택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업지연행동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J. Kim, 2008) 또한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목표추구지향성 및 자기구실 만들기를 포함한 관련 변인들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는데, 이는 자녀의 학업성적에 따라 부모의 관여 정도가 다르거나(S. Choo & S. Lim, 2008; A. L. Gonzalez & C. A. Wolters, 2006; Y. Hong & J. Lee, 2012; M. Yoon & C. Hong, 2006), 학업 수행 동기(S. Areepattamannil, J. G. Freeman, & D. A. Klinger, 2011; Y. So, 2008). 혹은 스트레스 대처 전략(M. S. DeBerard, G. L. Spielmanns, & D. L. Julka, 2004;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도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다(C. H. Lay & H. C. Schouwenburg, 1993; M. Synn, S. Park, & E. Seo, 2005) 이에 대한 추가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특히 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학업의 양이 증가하고 과제의 수준 및 난이도가 심화할수록 학업지연행동이 더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P. Steel, 2007). 미국의 경우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학업 수행의 부담이 크므로 학업지연행동 관련 연구들 대부분이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J. R. Ferrari, J. O'Callaghan, & I. Newbegin, 2005),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시 경쟁 등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목표추구지향성 및 자기구실 만들기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부모의 과보호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구실 만들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학업성적(상, 중, 하)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목표추구지향성 및 자기구실 만들기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구실 만들기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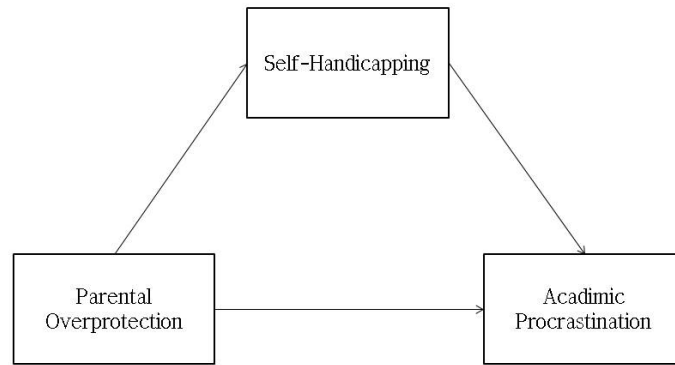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The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self-handicapping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42)

| Variable | Classification | Frequency(%) |
|---------------|-----------------|--------------|
| Grade | High school 1st | 391(41.50%) |
| | High school 2nd | 353(37.50%) |
| | High school 3rd | 198(21.00%) |
| School Grades | High-performing | 296(31.42%) |
| | Mid-level | 477(50.64%) |
| | Low-performing | 169(17.94%) |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2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교 120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질문지를 제외한 94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의 학업성적에 따른 집단 구분을 위해 학생이 보고한 현재 해당 학년의 1학기 평균 성적 80점 이상을 '상', 60-79점을 '중', 59점 이하를 '하'로 정의하였다.

2. 연구도구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를 측정하기 위해 E. Chung and S. Chang(200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부모의 과보호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자기보고식 검사로 '과잉기대', '자율성저해', '과잉통제', '과잉보호 및 불안', '과잉애착'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다소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신을 과보호 한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α 값은 .90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별 Chronbach's α 값은 과잉기대 .81, 자율성통제 .79, 과잉통제 .79, 과잉보호 및 불안 .82, 과잉애착 .65였다.

2) 목표추구지향성

목표추구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B. M. Dykman(1998)이 개발한 목표추구지향성 척도(Goal Orientation Inventory: GOI)를 H. Lee and H. Jang(2015)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확인추구지향성'과 '성장추구지향성'의 2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6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보통이다'(4점), '그런 편이다'(5점), '그렇다'(6점), '매우 그렇다'(7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α 값은 .95였으며, 각 하위 영역별 Chronbach's α 값은 확인 추구지향성 .90, 성장추구지향성 .95였다.

3) 자기구실 만들기

자기구실 만들기를 측정하기 위해 E. E. Jones and F. Rhodewalt(1982)가 개발한 자기구실 만들기 척도(Self-Handicapping Scale: SHS)를 J. Lyu(2006)가 번안하고 A. Kim(2009)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약간 아니다'(3점),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자주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α 값은 .65였다.

4) 학업지연행동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M. Aitken(1982)이 개발한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를 S. Jeon and J. Park(2014)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 그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영역에서의 지연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α 값은 .88이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 조사

본 조사에 앞서 2015년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경기도 소재 G고등학교 2학년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과정을 통해 질문의 이해 정도와 문항에 대한 답변이 원활함을 확인한 후 예비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경기도 소재 2개 고등학교의 1, 2, 3학년생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각 반 담임교사들을 통해 배부 및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질문지들을 제외한 총 942부가 분석 자

료로 사용되었다. 전체 질문지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h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Schèffe 사후검정,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의 학업성적(상, 중, 하)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의 차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량분석과 Schè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학업지연행동은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4.76, p<.001$), 하집단, 중집단, 상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목표추구지향성 및 자기구실 만들기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앞서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은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적 집단별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목표추구지향성, 자기구실 만들기 및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목표추구지향성 및 자기구실 만들기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학업지연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상관관계분석에서 학업지연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각각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각 회귀식의 분산팽창계수(VIF)는 1-1.016으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 결

과, D-W계수는 1.10-1.18으로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성적 상집단의 경우,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구실 만들기($\beta=.39, p<.001$), 목표추구지향성($\beta=-.15, p<.01$), 과보호($\beta=.13,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자기구실 만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942)

| Variable | Min | Max | M | SD |
|--------------------------------|-----|-----|--------|-------|
| Academic Procrastination | 15 | 75 | 41.84 | 9.02 |
| Parental Overprotection | 25 | 100 | 45.29 | 11.03 |
| Excessive expectation | 5 | 20 | 10.89 | 3.40 |
| Obstruction of autonomy | 5 | 20 | 6.43 | 2.07 |
| Excessive control | 5 | 20 | 9.42 | 3.20 |
| Overprotection and anxiety | 5 | 20 | 8.66 | 3.12 |
| Excessive affection | 5 | 20 | 9.93 | 2.65 |
| Goal-seeking Orientation | 36 | 246 | 149.04 | 27.79 |
| Validation-seeking orientation | 18 | 120 | 74.45 | 14.71 |
| Growth-seeking orientation | 18 | 126 | 74.54 | 17.72 |
| Self-handicapping | 49 | 104 | 71.84 | 7.54 |

Table 3. Difference in academic procrastination by school grades

(N=942)

| | School Grades | N | M | SD | F | Schéffe |
|--------------------------|----------------------|-----|-------|------|----------|---------|
| Academic Procrastination | High-performing | 296 | 38.59 | 9.13 | 44.76*** | a |
| | Mid-level performing | 477 | 42.25 | 8.27 | | b |
| | Low-performing | 169 | 46.36 | 8.71 | | c |

*** $p < .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1 | - | | | | | | | | | | |
| 2 | .74*** | - | | | | | | | | | |
| 3 | .69*** | .34*** | - | | | | | | | | |
| 4 | .85*** | .56*** | .51*** | - | | | | | | | |
| 5 | .89*** | .53*** | .57*** | .76*** | - | | | | | | |
| 6 | .62*** | .26*** | .39*** | .32** | .48*** | - | | | | | |
| 7 | .06 | .05 | -.03 | .05 | .03 | .13*** | - | | | | |
| 8 | .14*** | .17*** | -.01 | .12*** | .10** | .11** | .82*** | - | | | |
| 9 | -.02 | -.07* | -.05 | -.03 | -.02 | .10** | .88*** | .46*** | - | | |
| 10 | -.10** | .08* | .05 | .10** | .12*** | .01 | .02 | .21*** | -.15*** | - | |
| 11 | .10** | .03 | .14*** | .07** | .13*** | .04 | -.17*** | -.08* | -.18*** | .40*** | - |

1. Parental Overprotection 2. Excessive expectation 3. Obstruction of autonomy 4. Excessive control 5. Overprotection and anxiety 6. Excessive affection 7. Goal-seeking orientation 8. Validation-seeking orientation 9. Growth-seeking orientation 10. Self-handicapping 11. Academic Procrastination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The relative Influence of parental overprotection, goal-seeking orientation and self-handicapping on academic procrastination by school grades

| Dependent Variables | School Grades | Independent Variables | B | β | R^2 | ΔR^2 | F |
|--------------------------|----------------------|----------------------------|------|---------|-------|--------------|----------|
| Academic Procrastination | High-performing | 1 Self-handicapping | .48 | .39*** | .16 | | 50.43*** |
| | | 2 Goal-seeking Orientation | -.05 | -.15** | .18 | .02 | 29.66*** |
| | | 3 Parental Overprotection | .10 | .13* | .20 | .02 | 21.87*** |
| | Mid-level performing | 1 Self-handicapping | .44 | .38*** | .15 | | 74.44*** |
| | | 2 Goal-seeking Orientation | -.05 | -.16*** | .18 | .03 | 45.26*** |
| | | 1 Self-handicapping | .50 | .46*** | .21 | | 40.18*** |

* $p < .05$, ** $p < .01$, *** $p < .001$

들이 전체 변량의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50.43, p<.001$), 이에 목표추구지향성과 과보호가 각각 2%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총 20%로 나타났다($F=21.87, p<.001$). 학업성적 중집단의 경우,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구실 만들기 ($\beta=.38, p<.001$), 목표추구지향성($\beta=-.16,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업지연행동에 대해 자기구실 만들기가 전체 변량의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74.44, p<.001$), 이에 목표추구지향성이 3%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총 18%로 나타났다($F=45.26, p<.001$). 학업성적 하집단의 경우,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구실 만들기($\beta=.46, p<.001$)로 전체 변량의 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0.18, p<.001$).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구실 만들기의 매개효과

앞서 학업성적 중집단과 하집단의 경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두 집단은 매개효과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상집단을 대상으로만 Baron and Kenny(1986)의 세 가지 접근 모델에 근거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사라지거나 감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구실 만들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회귀식의

분산팽창계수(VIF)는 1-1.04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수는 .78-.184로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성적 상집단의 경우,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매개변인인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15, p<.05$),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종속변인인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beta=.21, p<.001$).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자기구실 만들기가 종속변인인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38, p<.001$), 동시에 청소년이 지각한 과보호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beta=.15, p<.01$). 그러므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구실 만들기가 부분적으로 매개했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또한 추가적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구실 만들기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2.29, p<.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목표추구지향성 및 자기구실 만들기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주요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성적(상, 중, 하)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집단, 중집단, 상집단의 순으로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와 지연행동 간의 부적 관계를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E. S. Alexander & A. J. Onwuegbuzie,

Table 6. The mediating effect of high-performing adolescents' self-handicapping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 | Step | Variable | β | R^2 | F |
|--------------------------|--|--|---------------------|-------|----------|
| Academic Procrastination | 1. Independent→ Mediator | Parental Overprotection→ Self-handicapping | .15* | .02 | 5.94* |
| | 2. Independent→ Dependent | Parental Overprotec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 .21*** | .04 | 12.95*** |
| | 3. Independent→ Dependent Mediator→ Dependent | Parental Overprotection→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handicapping→ Academic Procrastination | .15** .38*** | .18 | 30.68*** |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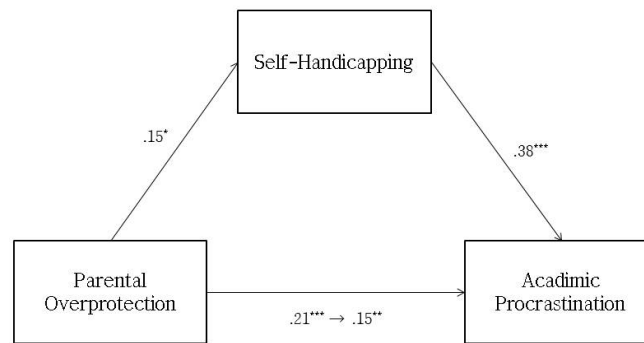


Figure 2. The mediating effect of high-performing adolescents' self-handicapping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2007; V. Beswick, J. Brodsky, F. Kepes, J. Neumann, A. Sanson, & M. Garrigos, 1998; J. R. Ferrari, J. L. Johnson, W. G. McGown, & Associates, 1995; D. M. Tice & R. F. Baumeister, 1997; G. Schraw, T. Wadkins, & L. Olafson, 2007; J. Wesley, 1994). 학업성적이 낮을 경우, 그에 따른 학업 성취 동기의 결여, 자기효능감 부족, 가중된 스트레스 등은 학업지연행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학업지연행동은 결과적으로 더욱 낮은 성취 결과로 이어져 이러한 악순환을 지속시킬 확률이 높다. 최근 들어 다양한 지연행동의 개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L. C. Hensley, 2014; H. Kim & Y. Lee, 2015; E. Shin & J. Goh, 2011), 수동적 지연행동은 기존의 지연행동과 유사한 의미인 반면, 능동적 지연행동은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자발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행동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학업성적이 좋을 경우 수동적인 지연행동은 감소하는 반면, 능동적 지연행동은 증가할 수 있음을 가리키며, 이러한 구분은 학업 성취와 지연행동 간의 낮은 상관 관계를 보고한 일부 선행연구 결과들(T. M. Brinthaupt & C. M. Shin, 2001; J. R. Ferrari, 1992; L. C. Hensley, 2014; C. H. Lay & H. C. Schouwenburg, 1993)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목표추구지향성, 및 자기구실 만들기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업성적 집단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학업 성적 상집단의 경우 자기구실 만들기, 목표추구지향성, 과보호의 순으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 중집단의 경우 자기구실 만들기, 목표추구지향성의 순으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하집단의 경우에는 자기구실 만들기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우선 모든 학업성적 집단에서 학업지연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구실 만들기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구실 만들기과 지연행동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B. L. Beck, S. R. Koons, & D. L. Milgrim, 2000; W. V. Eerde, 2003; P. Steel, 2007), 선행 연구들이 보고한 학업지연행동 관련 변인들인 자기효능감, 완벽주의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업 수행 상황에서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 기제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은 과제의 실패 원인을 스스로의 능력 부족이 아닌 다른 요인에 돌리기 위해 장애를 자초하는 회피 전략인 자기구실 만들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업성적 수준과 관계없이 이러한 자기구실 만들기가 학업지연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자신의 역량이 아닌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 혹은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잘못된 평가 등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함으로써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사용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학업지연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구성 요소에 과제 및 자신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 단계적인 계획 수행 점검(*monitoring*), 문제해결 훈련, 책임에 대한 사고 및 신념 다루기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치료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목표추구지향성의 경우 학업성적 상집단과 중집단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A. J. Howell & D. C. Watson, 2007; H. A. McGregor & A. J. Elliot, 2002; C. A. Wolters, 2004)에서 목표지향성과 학업지연행동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반면, 학업성적 하집단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

는 제외되었다.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S. S. Shim & H. Finch, 2014),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의 경우 일관되게 목표추구지향성 수준이 낮을 확률이 높으므로 학업지연행동에 끼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학업성적 상집단과 중집단의 경우 목표추구지향성에 따른 성취가 수반되나, 학업성적 하집단의 경우 목표추구지향성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성취가 낮으므로 목표추구지향성을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는 학업성적 중집단과 하집단의 경우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학업성적 상집단의 경우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상집단의 경우 높은 성취 및 학습 동기, 혹은 완벽주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H. Lee & H. Jo, 2013; R. Moore, 2003; P. R. Pintrch & D. H. Schunk, 2002; S. S. Shih, 2011), 이는 본인 스스로가 학업적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 및 통제 또는 과도한 기대가 오히려 반항심을 초래함으로써 지연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학업성적 상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는 곧 청소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식하기 쉬워 학업성적 상집단과 같은 반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 상집단에서 나타나는 학업지연행동의 감소를 위해 적절한 부모 양육 행동에 관한 부모교육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훈련을 추가하는 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가리킨다.

셋째, 학업성적 상집단의 경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구실 만들기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업성적 상집단의 청소년이 부모가 자신을 과보호 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자기구실 만들기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업성적 상집단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는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부모의 과도한 관여 및 통제에 대한 반발 등의 기타 이유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목표추구지향성 및 자기구

실 만들기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장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자기구실 만들기에 대해 적응적인 대안 전략을 학습하는 동시에, 자신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과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따라 목표 수립, 학습 동기의 활성화, 단계별 계획 실천, 좌절에 대한 감내력 증진 등을 통해 목표 추구 성향을 강화하거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교육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의 학업성적 집단 구분은 학교로부터 성적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학생이 보고한 현재 해당 학년의 1학기 평균 점수를 근거로 사용하였다. 둘째, 향후 지연행동을 능동적 지연행동과 수동적 지연행동으로 구분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학업 영역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연행동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 양상이 다르므로 발달 단계별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REFERENCES

- Abd-El-Fattah, S. M., & Fakhroo, H. A. (2012). The relationship among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A partial least squares path analysis. *Psychology, 3*(5), 428-439.
- Ahn, H. J., & Mo, A. R.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perceived mother's overprotection and the child's problematic behaviors by the child's enneagram personality typ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7*(3), 125-148.
- Aitken, M. (1982).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ittsburgh, USA.
- Alexander, E. S., & Onwuegbuzie, A. J. (2007).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the role of hope as a coping strate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7), 1301-1310.

- Areepattamannil, S., Freeman, J. G., & Klinger, D. A. (2011).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Indian adolescents in Canada and India.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4*(3), 427-439.
- Bae, D. S. (2009). The effects of fear on the academic procrastination: Mediation effects of academic motivatio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9*(1), 462-46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gh, E., & Davis, C. (2016).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contraceptive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 contraceptive use. *Marriage and Family Review, 52*(8), 764-780.
- Beck, B. L., Koons, S. R., & Milgrim, D. L. (2000).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behavioral procrastination: The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esteem and self-handicapp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5), 3-13.
- Berger, S., & Freund, A. M. (2015). Fear of failure, disorganiz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preparing for an exam. *Swiss Journal of Psychology, 71*(2), 83-91.
- Beswick, V., Brodsky, J., Kepes, F., Neumann, J., Sanson, A., & Garrigos, M. (1998). Expression,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ss1p,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yeast sec61p protein translocation complex. *Protein Expr Purif 13*(3), 423-432
- Brinthaupt, T. M., & Shin, C. M. (2001).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cramming to flow experience. *College Student Journal, 35*(3), 457-472.
- Burka, J. B., & Yuen, L. M. (2004).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what to do about it (4th ed.)*. Boston, Massachusetts: Da Capo Press.
- Capan, B. E. (2010).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1665-1671.
- Charles, T. T., & Lynn, E. E. (2006). Parental overprotec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generalized social phobia. *Behavior Therapy, 37*(1), 14-24.
- Choo, S. Y., & Lim, S. M.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procrastin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7), 347-368.
- Chung, E. Y., & Chang, S. S. (2008). The development of an overprotection scale based on teenagers' perception of their mothe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293-312.
- Chyung, Y. J. (2004). Children's percep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Moderator effects of children's sex and peer accepta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5*(6), 205-223.
- Deberard, M. S., Spielmans, G. L., & Julka, D. L. (2004).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retention among college freshmen: A longitudinal study. *College Student Journal, 38*(1), 21-35.
- Dykman, B. M. (1998). Integration cognitive and motivational factors in depression: Initial tests of a goal-orient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39-158.
- Eerde, W. V. (2003).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6), 1401-1418.
- Elliot, A. J., & Conroy, D. E. (2005). Beyond the dichotomous model of achievement goals in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Review, 1*, 17-25.
- Elliot, A. J., & McGregor, H. A. (2001). A2 x 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3), 501-519.
- Emmett, R. (2000). *The procrastinator's handbook mastering the art of doing it now*. NY: Walker & Company.
- Ferrari, J. R. (1992). Procrastinator and perfect behavior: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elf presentation, self-awareness, and self-handicapping compon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75-84.
- Ferrari, J. R. (2000). Procrastination and attention: Factor analysis of attention deficit, boredomness, intelligence, self-esteem, and task delay frequencie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5), 185-196.
- Ferrari, J. R., Johnson, J., & McCown, W. G.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 and treatment. New York: Plenum Press.
- Ferrari, J. R., O'Callaghan, J., & Newbegin, I. (2005). Prevalence of procrastination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rousal and avoidance delays among adult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7(1), 1-6.
- Flett, G. L., & Hewitt, P. L. (2013). Disguised distr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flying under the radar": Why psychological problems are underestimated and how schools must respond.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8(1), 12-27.
- Gonzalez, A. L., & Wolers, C. A. (2006).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practices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mathematics. *Journal of Research of Childhood Education*, 21(2), 203-217.
- Grunschel, C., Patrzek, J., & Fries, S. (2013) Exploring reasons and consequence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An interview stud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8, 841-861.
- Han, Y. S. (2011).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fear of failure on procrastin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Koreans*, 18(4), 277-299.
- Harrington, N. (2005). It's too difficult! frustration intolerance beliefs and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5), 873-883.
- Hensley, L. C. (2014). Reconsidering active procrastination: Relations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college anatom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57-164.
- Heo, J. H. (2006).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perfectionism, and traumatic experience on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3), 593-611.
- Hong, Y. J., & Lee, J. Y. (2012). The meditating effects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tween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2), 325-342
- Hong, Y. R. (2009). Effects of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school age communication on self-efficacy of school-age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5(4), 392-400.
- Howell, A. J., & Buro, K. (2009). Implicit beliefs, achievement goals, and procrastination: A mediational analysi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151-154.
- Howell, A. J., & Watson, D. C. (2007). Procrastination: Associations with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167-178.
- Huh, H. S., Lim, S. Y., & Kwon, S. M. (2015).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impulsiveness on academic initiation-and completion-procrastin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1), 147-171.
- Hwang, H. J., & Choi, Y. (2005). The effects of parents'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2(1), 285-304.
- Hwang, I. S., & Jang, S.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mediated by self-efficacy and perfectionism.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28, 25-43.
- Jeon, S. M., & Park, J. H. (2014).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perfectionism on their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moderating role of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589-612.
- Jones, E. E., & Rhodewalt, F. (1982). *The self-handicapping scale*.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Utah, Utah, USA.
- Kim, A. R.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handicapping mediated by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C. S. (2010). *Effect of 6-gingerol on vascular inflammation and atherosclerosis in diabetes mellit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Kim, H. J. (2003).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impulsivity, and fear of failure on procrasti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J., & Lee, Y. H. (2015).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active-passive procrastin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71-93.
- Kim, J. K. (2008). Effects of implicit belief of intelligence, parental style and goal orientation on self-handicapping.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1), 99-114.

- Kim, M. K., Kim, Y. H., & Han, S. Y. (2008). The effects of separation anxiety of mothers and young children, and mothers' overprotection on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7), 71-84.
- Krawchuk, L. L. (2008). *Procrastination, self-efficacy calibration, anxiety, and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Alberta, Canada.
- Lay, C. H., Kovacs, A., & Danto, D. (1998). The relation of trait procrastination to the big-five factor conscientiousness: An assessment with primary-junior school children based on self-report sc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2), 187-193.
- Lay, C. H., & Schouwenburg, H. C. (1993). Trait procrastination, time management, and academic behavior.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8*(4), 647-662.
- Lee, H. A., & Jo, H. I. (2013). The relation among perfectionism,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burnout: The mediating effects of motives and goal process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3), 575-601.
- Lee, H. H., & Jang, H. S. (2015). Quality of the parenting style o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on effect of goal-seeking orient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3*(2), 25-49.
- Lee, M. R., & Oh, K. J. (2009).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and academic motivation on academic procrastin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2), 363-377.
- Lee, S. Y. (2006).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self-efficacy as perceived by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2), 61-71.
- Lim, S. M., & Park, M. H. (2010). The effects of chronic procrastin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7*(2), 127-146.
- Lindsay, J. E., & Scott, W. D. (2006). Dysphoria and self-esteem following an achievement event: Predictive validity of goal orientation and personality style theories of vulnerabil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6), 769-785.
- Liu, Y., Park, I. S., & Moon, Y. S. (2010). Effects of perception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stress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4), 334-343.
- Mahasneh, A. M., Bataineh, O. T., & Al-Zoubi, Z. H.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parenting styles among Jordanian undergraduate university students. *Open Psychology Journal, 9*, 25-34.
- Mcgregor, H. A., & Elliot, A. J. (2002). Achievement goals as predictors of achievement-relevant processes prior to task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2), 381-395.
- Milgram, N., & Tenne, R. (2000). Personality correlates of decisional and task avoidant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141-156.
- Missildine, W. H. (2006). *몸에 밴 어린 시절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이석규, 이종범 역). 가톨릭 출판사.
- Moller, A. C., & Elliot, A. J. (2006). *The 2X2 achievement goal framework: An overview of empirical research*. New York, USA: Nova Science Publishers.
- Moon, Y. S., & Kim, D. H. (2001). Association between the perceived parenting and problem behaviors in Korean male adolescents.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2*(2), 237-244.
- Moore, R. (2003). Attendance and performance: How important is it for student to attend class? *Journal of College Science Teaching, 32*(6), 367-371.
- Nam, K. D., & Son, E. J. (2013).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on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role of procrastination.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1*(4), 41-50.
- Nelsen, J., & Erwin, C. (2000). *Parents who love too much: How good parents can learn to love more wisely and develop children of character*. New York, USA: Prima publishing.
- Niditch, L. A., & Varela, R. E. (2012). Perceptions of parenting emotional self-efficacy, and anxiety in youth: Test of a mediational model. *Child and Youth Care Forum, 41*(1), 21-35.
- Nien, C. L., & Duda, J. L. (2008).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goals: A test of gender invarianc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 352-372.
- Noh, J. H., & Song, H. J. (2007). The relationship be-

- 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parenting attitudes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Psychotherapy*, 7(2), 75-89.
- Ntoumanis, N., Talor, I. M., & Standage, M. (2010). Testing a model of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defensive pessimism and self-handicapping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Sports Sciences*, 28(14), 1515-1525.
- Onwuegbuzie, A. J. (2000). Academic procrastinators and perfectionistic tendencies among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15(5), 103-109.
- Park, S. H., & Seo, E. H. (2005). Women college stud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3(2), 115-134.
- Park, W. S., & Kim, M. S. (2009).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2(4), 85-108.
- Pintrich, P. R., & Schunk, D. H. (2002).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Upper Saddle River, NJ: Person education Inc.
- Pychyl, T. A., Coplan, R. J., & Reid, P. A. (2002). Parenting and procrastinat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 between procrastination, parenting style and self-worth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2), 271-285.
- Rabin, L. A., Fogel, J., & Nutter-Upham, K. E. (2011).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self-reported executive function.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33(3), 344-357.
- Reilly, E. E., Stey, P., & Lapsley, D. K. (2016). A new look at the link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isordered eat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8, 17-20.
- Schraw, G., Wadkins, T., & Olafson, L. (2007). Doing the things we do: A grounded theory of academic procrastin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1), 12-25.
- Seo, E. H. (2006).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treatment program for overcoming academic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harms, M., & Kaur, G. (2011). Gender differences in procrastination and academic stress among adolescents. *Indian of Social Science Researches*, 8(1-2), 122-127.
- Shim, S. S., & Finch, H. (2014). Academic and social achievement goals and early adolescents' adjustment: A latent class approach.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98-105.
- Shin, E. J., & Goh, J. K. (2011). The relations between active-passive procrastination behavior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2(2), 25-47.
- Shih, S. S. (2011). Perfectionism,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and Taiwanese eight-grade students' academic engag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4(2), 131-142.
- Silk, J. S., Morris, A. S., Knanya, T., & Steinberg, L. (2003).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granting: Opposite ends of a continuum or distinct construc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1), 113-128.
- Sirois, F. M., & Stout, D. (2011). *When knowing better doesn't mean doing better: Understanding the roles of procrastination and self-blame i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nurses*. 7th Biennial Conference on Procrastination, Amsterdam, The Netherlands.
- Smith, M., Duda, J., Allen, J., & Hall, H. (2002). Contemporary measures of approach and avoidance goal orientation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 155-190.
- So, S. S., Song, M. K., & Kim, C. S. (2010).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depression of early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3), 1-23.
- So, Y. H. (2008). A path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by a school grad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7(2), 49-64.
- Spada, M. M., Hiou, K., & Nikcevic, A. V. (2006). Metacognitions, emotions and procrastinat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20, 319-326.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 65-94.
- Stöber, J., & Joormann, J. (2001). Worry, procrastination, and perfectionism: Differentiating amount of worry, pathological worry,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 Research, 25*(1), 49-60.
- Suh, K. H., You, J. M., & An, K. M. (2008). Predictors of social anxiet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 on of behavioral inhibition, parental attitude,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3), 675-693.
- Synn, M. H., Park, S. H., & Seo, E. H. (2005). Women college students' time management and procrastination on college grad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3*(3), 211-230.
- Tice, D. M., & Baumeister, R. F. (1997). Longitudinal study of procrastination, performance, stress, and health: The costs and benefits of dawdling. *Psychological Science, 8*(6), 454-458.
- Urduan, T., & Midgley, C. (2001). Academic self-handicapping: What we know what more there is to lear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2), 115-138.
- Wesley, J. (1994). Effects of ability, high school achievement, and procrastinatory behavior on college performance. *Educational & Psychological Measurement, 54*(2), 404-408.
- Wolters, C. A. (2003). Understanding procrastination from a self-regulated learning perspectiv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79-187.
- Wolters, C. A. (2004). Advancing achievement goal theory: Using goal structures and goal orientation to predict students' motivation, cogni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2), 236-250.
- Yahav, R.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nd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ing style and internal and external symptom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4), 460-471.
- Yoo, M. S., Ha, E. H., & Kim, H. J. (2004). Developmental analysis of perfectionism in parents' attitude,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attachment styl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425-444.
- Yoon, M. S., & Hong, C. Y. (2006).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subject-specific interest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 Methodology Studies, 18*(2), 139-155.
- Zakeri, H., Esfahani, B. N., & Razmjooe, M. (2013). Parenting style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84*, 57-60.

Received: September 14. 2016

Revised: November 23. 2016

Accepted: December 23. 2016